

전일동향

전일대비 1.50원 상승한 1,469.20원에 마감

25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장대비 1.50원 상승한 1,469.2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종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0.10원 하락한 1,467.60원에 개장했다. 환율은 장 초반 1,471원까지 상승한 이후 네고 물량 출회 및 당국 개입 경계 등에 추가 상승은 제한되었다. 다만, 위안화 절하 고시에 따른 위안화 약세, 국내 정치 불확실성 등에 하단이 지지되며 좁은 폭을 등락하다 1,469.20에 종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3.5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75.82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467.60	1471.10	1463.50	1469.20	1469.60
	엔화	973.78	981.32	971.49	980.02	-
	유로화	1585.16	1588.54	1580.51	1585.22	-
* 시가/고가/저가/종가 : 달러는 익일 06:00 기준, 엔화 및 유로화는 15:30 기준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41	-5.33	-13.19	-27.38
	결제환율(수입)	-0.23	-4.54	-11.43	-23.98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글로벌 달러 약세에...1,460원대 초중반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4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1,469.20) 대비 5.75원 하락한 1,461.0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미 소비심리 부진 및 상호관세 경계감에 따른 달러 약세에 하락이 예상된다. 미국 3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는 92.9pt를 기록하며 전월치(100.1pt)를 큰 폭으로 하회했다. 특히 소비자 기대지수는 65.2pt로 경기침체 임계점인 80.0pt를 하회하며 소비자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시장에서는 상호관세 부과를 일주일 앞두고 경계감이 높아지며 달러는 약세를 시현했다. 미 달러지수는 0.09% 하락한 104.22pt를 기록했다. 미국 국채금리는 장단기 모두 하락 마감했다. 한편, 유로화는 독일의 재정확장 기대감에 IFO기업 환경 지수가 호조를 보이며 상승했다. 엔화는 이시바 총리의 강력한 물가 정책 시사 발언 및 BOJ의 금리인상 가능성 기대에 강세 전환했다. 이에 글로벌 달러 약세 분위기 속 주요 통화 강세에 연동되어 금일 환율은 하락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뉴욕증시 반등에 따른 위험 선호 회복 등도 환율 하락 분위기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수입업체 결제 등은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459.60 ~ 1468.4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787.12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5.75원 ↓
	■ 美 다우지수 : 42587.5, +4.18p(+0.01%)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94.05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4588 억원